

말씀이 시온에서

말씀 : 이사야 2 : 1~3

요절 : 이사야 2 : 3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 년경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때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고 장차 임할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유대와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개의 주제입니다. 첫째, 말일에 여호와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며,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는 것입니다. 셋째,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6년 한해 우리 각자가 힘써야 할 영적방향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말일에 여호와와의 전의 산이(2,3a)

다같이 2,3a절을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2,3a)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말일(in the last days)에 일어날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와의 전(성전)이 있는 거룩한 시온 산(성전 산)이 모든 산보다 뛰어나게 되는 것이고, 세계만방

에서 사람들이 그 산으로 모여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몰밀듯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기 때문에 예루살렘 국제공항과 고속도로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전 산에 올라 여호와의 전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초막절, 그리고 칠칠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본 환상은 많은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의 구조와 양식, 성막에 쓸 기구들과 성막의 재료, 색깔, 치수,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섬기게 될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 규례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을 완성하였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고 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땅에 들어갈 때는 성막을 앞세워 요단을 건넌으며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성막에 모셔야 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겨가자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무서운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겁에 질린 블레셋사람들이 언약궤를 벳세페스로 보냈습니다. 언약궤는 거기서 다시 기랴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으로, 아미나답의 집에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그 후 다윗은 오벳에돔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언약궤는 예루살렘의 다윗 성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자 다윗 왕국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때 다윗이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자신이 오늘날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나단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했을 때 다윗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

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성전의 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산위에 짓도록 명하셨습니다. 그곳은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 고자 하였던 모리아 산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BC 950년에 봉헌식이 이루어졌고 BC 587년 제 2 차 바벨론 유수 때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BC 538년 바벨론 포로기간 중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시어 예루살렘에 전을 짓도록 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작고 초라한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후에도 주변 열강들의 지배아래 고통하다가 BC 168년에는 시리아가 지배할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기구들이 탈취되었고,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제단에 돼지를 번제로 드리도록 하는 등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 후 로마의 지배아래에서 헤롯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헤롯 성전마저 AD 70년 로마군의 침공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림으로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 년에 세 차례(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회를 갖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솔로몬은 성전봉헌식을 드리면서 이 성전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고, 설령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적에게 패하게 된 경우에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고, 이 백성이 범죄 함을 인하여 비가 안 올 때도 이 전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비를 내려 주시며,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나 전쟁 혹은 재앙과 질병 가운데서도 이 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솔로몬을 찾아 오셔서 그의 모든 간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으로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샘이요,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강물에 대한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내

린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만물이 소성하고 번성하며 생물이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는 성전에서 흘러내리게 될 생수의 강물로서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헤롯 성전은 AD 70 년 로마군에 의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본 환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가리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요2:19)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 년 동안이나 걸려 지었는데 네가 3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2:21) 후에 사도요한은 밧모 섬에서 장차 임할 일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계21:22)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예표이고 예수님이 온전하고 영원한 참 성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제사드림으로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은 만물을 소성케 하는 생명수 강물이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치유와 회복, 자유와 승리,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인생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힘들고 어두웠던 시기가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학교도 중퇴하고 일자리도 없던 때였습니다. 건강문제가 산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같은 문제들을 들고 오산리 금식기도원을 찾았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제 인생을 산제사, 산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깨지고 더러워진 접시가 보이는데 또 하나님의 손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시지만 나의 믿음의 그릇이 깨어져 있고, 더러워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환상을 본 후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 부터 하나 둘씩 제 인생의 실타래가 풀리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남병원 인

턴, 특공부대 군의관, 산부인과 전공의 과정, 그리고 교수임용, 박사학위, 미국연수, 광주 7부 개척 등 모든 것이 기적의 연속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해에는 광주 7 부에 환난의 파도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 곤궁한 곳에 찾아오셔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목마름 속에 방황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기쁨의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38년 된 병자를 찾으셨을 때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빛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군중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자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림으로 생수의 강물을 넘치게 공급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참된 제사를 드림으로서 생수의 강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12:1)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서 산제사를 드림으로서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강물,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3b)

다같이 3절을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3) 원래 제사장의 직분 중에 하나가 성소에서 율법을 선포하고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매 안식년에는 초막절에 성막에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자손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셨습니다. 또 금식일에 여호와의 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셨습니다.

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백성들을 모으고 율법 책을 낭독함으로서 백성들이 율법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멀리하고 백성에게 가르치지 않을 때 백성들은 영적으로 궁핍해지고, 나라는 위기와 환난에 처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쳐야 할 레위지파 사람들이 할 일이 없고 먹고 살 길이 없게 되자 흩어져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나 율법 책에 무관심했던지 요시야 왕은 성전을 보수하다가 여호와 의 율법 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왕이 잊고 지내던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하였습니다. 율법 책을 발견한 것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불씨가 된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열여덟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왕하23:22,23) 율법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유월절을 지켜야겠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 이후에도 율법을 가르치며 백성들을 돌이키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니다. 이런 제사장들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호4:6)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앗수르에 멸망하고 남 유다 역시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 레위지파의 제사장직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의 책임은 실로 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장차 말일에 일어날 환상이 무엇이였습니까?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2a) 여기서 “그의 길”이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길”이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백성들이 걸어야 할 “길”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을 갈 때 생명과 구원, 복과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으신 다른 길을 갈 때 실족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바가 즐기치게 이 길에 대한 것입니

다. 에덴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였을 때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말씀을 주심으로 백성들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이며 가서는 안 될 길이 무엇인가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 년 동안에 이 길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십 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시95:10,11)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좁고 험착한 길”과 “크고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말씀하셨고,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두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양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목자가 그의 길 아닌 다른 길로 양들을 인도할 때 양들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마땅히 행하여야 할 그의 길로 가르치지 않으면 백성들은 거짓된 사상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길을 가르치면 듣기 싫어합니다. 위로와 축복, 은혜와 구원, 사랑과 용서 등을 가르치면 은혜를 많이 받지만, 회개의 메시지,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 공의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싫어합니다. 저는 7부 역사를 섬기면서 그의 길을 가르치고자 열심히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했는데, 동역자들이 듣기 싫다고 떠나는 아픔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다시 한 번 여덟 분의 동역자들이 떠나는 사건을 통해서 저는 더 깊은 좌절 가운데 낙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목자님 가정을 보내주시고, 어거스틴, 에녹목자님 가정과 야곱, 세진 목자님들을 보내주심으로서 불꽃같은 신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토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의 길을 전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보시고 그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길을 배우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며,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주

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미국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이 분은 기독교 역사상 괄목할 만한 영성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신앙위인이었지만, 자신이 섬기던 교회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가 배척받은 이유는 그의 설교가 주로 죄에 대한 심판과 지옥형벌 등 회개와 심판을 다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 뿐 만 아니라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도 갈급한 심령으로 배우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듣기 좋은 메시지만 전하는 종들이 아니라 듣기 싫어할지라도 그의 길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본 환상은 말일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말일에 그의 길을 가르치리라고 하셨을까요? 말일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환난과 핍박이 심해지고, 성도들은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마지막 때의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날 물질문화와 세속적인 가치관의 물결은 더욱 거세게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돈의 위력과 세상영광의 유혹이 거센 파도와 같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강한 죄의 세력이 영적지도자들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야 할 그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은 시대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자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길을 걷지 않은 자와 그의 길을 걷는 자의 결국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길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길을 가르치고 전파하셨을 뿐 아니라 직접 그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그의 길을 전파하셨고 가셨을 뿐 아니라 그의 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그러므로, 그의 길을 가르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길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

자가 고난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순종의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로서 영광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길을 배우고 그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3c)

다같이 3c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3c) 이사야 선지자는 2장 1절로부터 3절에서 예루살렘을 지명하여 여러 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시온, 곧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구속역사의 중심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다시 바사(페르시아, 이란)와 헬라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고자 마침내 BC 142년 마카비 독립운동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지만, BC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아가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서 다시 로마제국의 통치아래 들어갑니다. 로마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 없이 독립운동을 전개함으로서 로마는 AD 70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135년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함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 성이 불타고 무너진 이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세계지도에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신학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였고, 이사야가 본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예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와 예루살렘이 말일에 구속역사의 중심이 되리라는 예언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일에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장차 말일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전의 영광을 회복하리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것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이사야의 예언은 언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롬11:25,26a) 이스라엘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구속역사의 중심이 될 것이며, 만방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눅13:34,35) 예루살렘이 강대국의 침공으로 황폐하여 버린바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 예루살렘을 떠나 세계각지를 유리방황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주님의 재림이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눅21:24)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인들에게 밟히겠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1948년 유엔에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알리야 즉 흩어진 유대인들의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역사의 물줄기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룩

한 성이 될 것입니다. 그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율법이 증거 될 것입니다. 김종철 감독의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신자들(메시아닉 유)은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교 신자들로부터 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서 쫓겨나 광야에 천막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울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함께 교제하며 떡을 썰 것입니다. 역사상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서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박해와 시련을 당하였고, 기독교인들 역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특히 십자군 전쟁 때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때가 바로 말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들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말일에 있을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역사가 말일을 향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대와 구별되어 거룩하고 성별된 삶으로 주님오실 날을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기보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주님 맞을 준비해야 합니다. 맡겨주신 양 무리와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산제사 드림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하겠습니까.

